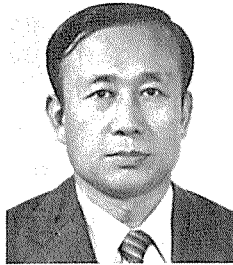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1989년도 제 1 차 보건요원교육을 마치면서



이 관 영

지난 6월 16일에 있었던 제1차 보건요원교육에 참여해 주셨던 각 시도 방역계장님, 시·군 예방의약계장님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같은 뜻을 가진 공무원 여러분과 관련산 하단체인 건강관리협회의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로서 최초로 시도되었다는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해나가는 동지로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여러분과 건협이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건강관리협회는 창립 이래 25년동안 국민건강관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한때 국민건강에 있어 최대의 문제였던 기생충 감염율이 80% 이상을 상회하던 60년대, 기생충 퇴치만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개척자적인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기생충박멸협회로 발족한 이래, 20여년동안을 기생충 퇴치를 위해 전 직원이 전념해왔습니다.

그 결과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생충 감염율이 현저히 감소하여 '88년의 경우 1.5% 까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생충 감염율의 저하는 국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면서, 저희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선구자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의 노력을 여기에서 그칠 수 없고, 좀더 차원높은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후진국의 상징이었던 기생충을 박멸한 우리 건협은 국민건강의 제2단계 사업으로써 비전염성 만성질환(성인병)의 퇴치를 위하여 거보를 내디뎠습니다.

질병이 상당한 기간 진행된 다음에야 치료를 해 온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사전에 건강을검진하여 미리 예방하는 길이 참된 건강을 위한 길임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행동화하기 위하여 벽지 낙도의 주민을 비롯하여 농어촌, 학생,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의식개혁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치료위주의 건강관리에서 예방의학적 건강검사를 통한 건강관리를 확고히 정착시키려는 제2단계 목표를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무대로 하여 선구자적 정신과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건강검진만이 아닌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Health Monitoring System의 정착을 최종적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여 보다 차원높고 과학적인 건강관리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여년 전부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현재는 전 연령층을 커버하는 국민건강관리 시스템이 정착되었을 뿐 아니라, 노인건강법, 학교 건강관리법, 모자 보건법 등에 의해 건강관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건협은 우수한 인력과 전국적인 조직, 그리고 그간의 사업경륜을 바탕으로 National Health Monitoring System을 마련해 전 생애를 통한 국민건강관리 정착을 실현시킴으로써 눈부신 경제성장에 버금가는 선진국형 국민건강생활을 이룩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2단계 목표는 저희 건협의 사명감과 궁지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기생충 퇴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던 것처럼, 뜻을 같이하는 동지적인 입장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동반적인 자세로서 정기적인 예방검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도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희 건강관리협회를 믿고, 지역주민건강관리를 위한 제반 사업, 즉 시·군비 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등을 맡겨 주시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이 기회를 통해 약속드립니다.

이번 교육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국민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동반자이며 동지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매진합시다.

〈필자=건협 사무총장〉